

프랑스·캄보디아... 세계 민주·인권 기록유산 광주서 본다

佛 인권선언문·캄보디아 학살 진술서 등 복제본

5·18 기록관 개관 기념 12개국 50여점 상설 전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세계 민주·인권 기록물이 광주에 모여 전시된다.

5·18 세계기록유산이 전시·보관될 '5·18 기록관' 개관과 함께 상설 전시될 이들 기록물은 독재·학살·인종차별·인권침해·양성불평등에 맞서 싸운 세계 민주·인권기록유산으로, 세계 민주·인권역사의 대전환점을 만든 귀중한 사료(史料)들이다.

11일 광주시와 5·18 기록관에 따르면 기록관 3층 해외기록물 상설전시실에 12개국 50여 점의 세계 민주·인권운동 기록유산 복본(複本·원본을 그대로 베낀 서류)이 개관과 동시에 상설 전시된다.

전시 기록물은 근대국가의 인권 개념의 기반이 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프랑스)과 세계 최초의 여성

참정권을 가능케 한 '여성참정권 청원서'(뉴질랜드), 구소련 시절 최초의 노동조합 설립 계기를 마련한 '21개 요구사항 판재'(폴란드), 인류학살의 참상을 낱말로 보여주는 '아기를 안고 있는 S21 여성 수감자 사진'(캄보디아) 등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성명서·미라발 자매 메모'와 파라과이의 '게릴라와 접촉해 구속된 뒤 실종된 실종자 기록', 브라질의 '국가정보원 보고서' 등도 전시된다.

이들 기록물은 (사)5·18 아카이브 설립 추진위원회가 지난 2013년 5월 16일 5·18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지난 2011년) 기념으로 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인권기록물 소장(국가)기관회의에서 관련국가의 협조를 받아 원본자료를 복본화(複本化)한 것이다.

5·18 기록관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

지 7개월간 인권기록물 소장기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담당자들로부터 관련기록물을 직접 전달받아 실물(원본) 크기로 복본화 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들 사료의 공통점은 국내외 민주·인권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5·18 민주화운동처럼 자국은 물론 전세계의 민주·인권운동과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물이라는 점이다.

5·18 기록관 측은 사료의 중요성을 감안, 세계 민주·인권운동사와 의미를 바로 아는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여분의 복본 자료를 이용, 국내에서 기획 전시회도 열 방침이다.

5·18 기록관 관계자는 "5·18 기록관에 전세계 민주·인권운동 등 역사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세계기록물이 한데 전시되는데, 5·18 기록관이 유일무이한 것"이라며 "하루빨리 개관돼 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세계기록물을 직접 보고 민주·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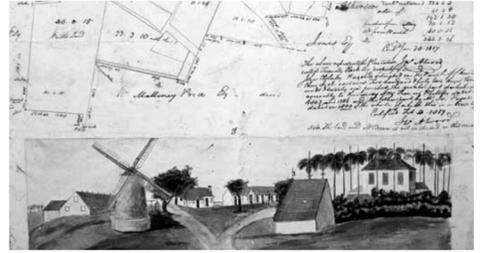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문'



파라과이 '마르틴 알마다 기록'



바베이도스 '토지구획 문서'

편 문화전당 운영 '아시아 문화원' 설립 착수

'아시아 문화 개발원' 해산안 의결... 인력·직제 등 절차 진행

오는 9월4일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을 운영할 조직구성 작업이 본격화돼 나왔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11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문화원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안을 의결했다.

문화개발원 해산은 문화전당을 국가

가 운영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탄생할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문화전당 운영을 맡게될 정부기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부터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위탁받게 된다. 현재 문화전

당의 개관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법적으로 해산되고, 그 업무와 권한을 승계한 아시아문화원으로 출범한다.

문화전당 건립과 개관업무 등을 맡아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금명간 기재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인력 규모와 직제 등을 정하는 등 문화개발원 설립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특별을 근거

로 지난 2011년 개원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한편, '아시아문화전당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와 문화전당의 미래를 결정할 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의 구성 및 수장 선임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검증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선 KTX 예매 13일부터

다음달 2일 개통...광주 송정역~서울 용산역 1시간 33분

4월 2일부터 본격 운행되는 승차권 예매는 이달 13일부터 할 수 있다.

호남고속철도(1단계)가 개통되면 광주 송정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1시간 33분 이면 갈 수 있다.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달 말까지 개통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아송~광주송정)은 2009년 5월

착공해 지난해 9월 구조물 공사가 끝났다. 철도시설물 검증시험을 거쳐 영업시운전 중이다.

종합점검 기간에 제기된 노면 침하 문제와 콘크리트 궤도의 철근 문제는 보수 작업이 지난달 말 끝났으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KTX 운영에 대비해 역사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도 운영 중이다. /이종행기자 galee@

국고보조사업 2천개 전수조사

사업성 적은 사업 일부 폐지·통폐합

정부가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보조금 사업 2000여개를 전수조사해 일부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14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

다.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매년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해왔으나 올해는 2000여개 전체로 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

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마련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안에 국고보조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3분기에는 부처별·사업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농업인 맞벌이 부부 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업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 자녀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농업인의 경우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국립농산물관리위원회에서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추가 환급 가능

경정청구 2020년까지

지난 1월 연말정산때 공제항목을 빼뜨렸어도 아직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

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맹이 제공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256명의 사례를 보면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의사, 변호사, 약사, 현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편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우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대빌딩 B10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사원모집 공고

전문건설업을 주도하는 대선산업개발(주)에서 사세확장과 더불어 함께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직종, 인원 및 응시자격

- 공 통 : 본사경리부 및 현장공무 담당
- 주 소 : 전남 화순 도곡 원화리 583 (연락처 : 010-5274-2450)

부서	직렬	모집인원	응시자격	특기사항
경리부, 현장공무	경리분야 공사, 공무	00명	해당분야 경력자 또는 면접후 결정 전공분야	근무지 및 연봉은 면접후 결정 채용시까지

■ 채용방법

- 서류전형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경력자(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사본)
- 면접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대선산업개발(주)

2015년 **부동산 핵심유망지역 투자전략 세미나**

현 토지 시장의 트렌드를 낱알이 밝히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토지투자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3. 12(목)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 상반기 부동산 소액투자 전략
-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
-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 개발 유형별 토지 투자가격 분석
- 광주·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투자처 및 확실한 투자전략법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광사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합법 개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